

정보화시대와 인간 (Man and Computer)

January 13, 1997

김주한 : 전문의,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psyber@plaza.snu.ac.kr; <http://plaza.snu.ac.kr/~psyber>

포나(PONA) 내 사랑!

“사이버왕국의 공주는 눈물로 애원하고 단식투쟁까지 해보았지만 그녀의 사랑에 대한 부왕의 반대는 단호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앞에서 그녀는 결국 자결의 길을 택했다. 부왕의 반대 이유는 너무나도 정당하고 명백했다. 그녀의 사랑은 하찮은 ‘포나’에 불과했던 것이다.”

사이버평크계열의 문학에서 ‘포나(PONA: People Of No Account, 인터넷에 계정이 없는 사람)’는 사이버스페이스의 거주민들에게 종종 멸시와 차별의 대상으로 ‘그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들’을 묘사하는 말이다. 이방인에 대한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다. 그들은 무례하고 무지하며 위험한 존재로 묘사되어 그들과의 관계형성은 용납될 수 없는 금기로 치부된다.

필자는 지난 크리스마스에 멜라니 쇼우라는 한 여자에게서 무려 700통이 넘는 이메일을 받아야 했다.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던 악몽 같은 메일전송이 그치기까지는 무려 2박 3일이 걸렸고 중요한 메일을 기다리던 필자는 옥석을 가리느라 한참을 시달려야 했다. 메일의 내용은 우습게도 “저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기고 26일해야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당신의 메일에 답신하겠습니다”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HIL-7이라는 메일링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데 멜라니 쇼우 역시 같은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친절하게도 자신에게 오는 메일에 대해 휴가 때문에 답변이 늦어진다는 양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향한 모든 메일에 자동답신을 하는 작은 프로그램을 작성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녀의 친절은 그녀가 속한 모든 메일링리스트로부터의 자동발송 메일에 대한 답장을 다시 자동발송하는 무한루프(이를 Cross Forwarding이라 함)에 걸려서 아마도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 모두에게 관심조차 없는 그녀의 귀가일정을 700번씩 읽게 하는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귀중한 몇 개의 메일링리스트를 60시간이상 ‘스팸’시키고야 말았다.

‘스팸’이란 스팸과 같은 햄 한 덩어리를 선풍기 위에다 떨어뜨렸을 때 일어나는 효과를 빗대어 쓰이는 속어로서 게시물 등을 무분별하게 여기저기에 올려놓은 행위를 말한다. 물론 잇달아서 멜라니 쇼우에 대한 엄청난 비난과 변론의 글들이 쏟아졌고 리스트는 다시 한번 마비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네티즌의 분노를 사야 했던 ‘켄터와 시겔 사건’에 비하면 이 멜라니 쇼우 사건은 귀여운(?) 실수에 불과 했다. 켄터와 시겔은 5,500개 이상의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상업적 광고를 올려대는 몰지각한 ‘매스포트’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가, 그들의 사무실을 불질러버리겠다는 16세 소년의 협박

을 받기도 했고, 차마 글로 쓸 수 없는 욕설과 분노로 가득한 수만 통의 메일을 받아야 했으며, 그들의 팩스는 빈 종이를 계속 빨아내었고, 그들의 사무실로는 허위로 구독 신청된 잡지가 계속 날아들었다. 이 사건으로 그들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가장 중요 받는 인물로 낙인찍혀야 했다.

이는 단순히 네티켓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인터넷이 불러일으킨 통신혁명이 유발할 갈등의 서막에 불과하다. 각각 실수와 돈벌이를 위한 고의로 벌어졌던 앞의 두 사건은 예절을 이해 못해서 일어났던 것은 분명히 아니다. 정보화시대에는 ‘네티켓을 배우는 것’ 이외에도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이 유발한 ‘정보흐름의 근본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러한 ‘갈등의 문화심리적 의미를 음미함’으로서 새로운 관점, 즉 새로운 밀레니움을 끌어안을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야 한다. 그때서야 인터넷이라는 이 문화충돌의 장소는 새로운 인류문화 탄생의 장소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우왕좌왕하며 엉뚱하게도 곳곳에서 갈등을 촉발하는가? 우리가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은 정보흐름 양식의 변화가 생각보다 좀더 근본적이라는 것이다. 정보혁명이 붕괴시킨 것은 의사소통에 대한 우리의 “기대”이다*. 수만 년간 우리의 주된 통신 프로토콜은 ‘말’이었다. 우리는 대화 시에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즉시 듣는다는 ‘기대’와 상대의 표정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문자발명은 의사소통의 즉시성과 상대 표정읽기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렸다. 통신기술로 의사소통은 광속으로 빨라졌고, 쉬운 복사와 포워딩(forwarding)으로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보냈다고 기대했던 이메일이 그 기대를 깨고 수백만 명에게 전달되곤 한다. 종이매체 시대의 인쇄물은 그 저작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위를 보장한다. 우리는 무의식중에 전자매체에 대해서도 같은 정도의 권위를 기대하지만 전자매체 시대에는 설령 그것이 네살박이가 써놓은 장난글일지라도 이를 알 턱이 없다. 짜증을 내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변하는 것은 바로 의사소통 결과에 대한 우리의 ‘기대’이다. 정치인이 쉽게 허황된 공약을 하는 것은 청중의 기억이 흐려지면 지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정한 것이지만 모든 통신내용이 쉽게 캡춰되고 영속적으로 보관되는 전자매체 시대에는 자신이 한 말이 평생 그를 거머리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역으로 통신내용의 영속성은 사적비밀보장을 방해할 것이다. 정보의 양적 증가는 어렵게 얻은 정보가 모두 귀한 것일 것이라는 기대를 무너뜨린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통신기술은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해갈 것’이며 이에 따라서 ‘우리의 기대도 계속 새롭게 변화해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인류의 문화는 항상 사람들의 등급을 매기거나 차별화 해내어 새로운 계급을 생산해내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두 문화간의 집단적 피해의식은 자신들의 미숙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상대집단에 투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사이버문화를 무정부적이고 저질이라 공격하는 측에서는 그 증거로 자료의 대부분이 음란물 혹은 폭력물이라는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경악해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기존

문화의 가장 큰 치부인 음란성과 폭력성의 책임을 사이버문화에 투사한 것에 다름 아니다. 자유와 완전평등을 그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해커문화도 포나들이 인터넷 새내기로 대량 유입되어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엉뚱한 질문을 한다든지, 엉뚱하게 게시판을 어지럽힌다든지 하는 무례한 행위를 하면 심한 언어적 공격을 해대거나 그들을 소외시키려는 압력을 행사한다. ‘네티켓도 모르는 것들’이라는 그들의 비난 뒤에는 그들만의 특유한 형식의 자유와 질서를 누리하고자 하는 소아적(小我的) 선민의식이 숨어있다. 결국 서로가 비난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미숙하고 부정적인 측면인 것이다. 이것이 이종 문화간의 차이를 단순히 인정할 수 없게 하고 서로에게 무지하고 무례하고 위협한 집단이라는 낙인을 찍는 집단적 심리의 근원이다.

인터넷은 확실히 문화충돌의 현장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 몇몇 탐욕스러운 정신도 침투하고 있지만, 필자는 ‘하찮은 포나에 불과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친절하게도 FAQ나 네티켓을 묵묵히 정리하며 생각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심어 가는 진정한 네티즌들이 이 문화충돌의 혼돈에서 우리를 구할 영혼의 인도자들임을 믿는다. 네티켓도 배우고 갈등의 특성과 문화적 의미도 음미해보자. 서로의 색안경을 벗을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가자. 해커나 포나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무지하고 무례하고 위협하기까지 한 집단으로 낙인찍어 바라보고 있는 한 공주의 비극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걸어온 길이고 또 걸어갈 길이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된 디지털 혁명은 ‘쉬지 않고 스스로 변화하는 특성’으로 우리가 단순히 포나로서나 혹은 지금 소유한 네티즌 입장권만으로 사이버스페이스에 가만히 머물러 있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Huang MP and Alessi NE : The Internet and the Future of Psychiatry. Am J Psychiatry. 1996; 153:861-869